

주간 전남 농업

VOL. 238

Jeonnam Agricultural Information

2019년 6월 셋째주

주간 날씨정보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음

저비용,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사과·배 주산지에서 화수화상병 확산 추세
정책동향 및 홍보 창덕궁에서 풍년기원 손모내기 해요!

전남 시군 농정 동향 나주시, 농촌 일손 돕기 구슬땀 ... 영농철 농가 활력

해외 농업정보 2019년 러시아 식품 트렌드 6선



전라남도, 전남 10대 우수 브랜드쌀 수도권 릴레이 홍보



전라
남도 농업기술원
Jeollanam-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목차 및 요약

1. 주간 날씨정보 6

- ▶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 17 ~ 20도, 최고기온 : 24 ~ 28도)과 비슷하겠음

2.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7

- ▶ 채소 : (예보) 역병, 탄저병 등
- ▶ 과수작물 : (예보) 배검은별무늬병, 복숭아세균구멍병·잣빛무늬병 등

3. 농산물 관측정보 8

- ▶ 사과 생육 및 착과수
- ▶ 배 생육 및 착과수
- ▶ 포도 생육 및 면적
- ▶ 복숭아 착과수 및 출하

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3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17

- ▶ 사과·배 주산지에서 과수화상병 확산 추세
- ▶ 벼 최소경운 이앙농법으로 온실가스 배출 줄인다
- ▶ 호밀 씨알, 노랑게 익고 단단해지면 수확하세요
- ▶ 농촌진흥청, 장마철 앞두고 농작물 사전관리 당부
- ▶ 고품질 고구마 생산 위한 본밭 관리 요령
- ▶ “장마철 농기계 침수에 주의하세요”
- ▶ 구기자에 발생하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의 특성 및 방제
- ▶ 농촌진흥청, 닭 사육농가 폭염 피해 예방 선제 대응 나서
- ▶ 거세한우 잘 키우는 최고의 기술은?

6. 정책 동향 및 홍보안내 31

- ▶ 창덕궁에서 풍년 기원 손모내기 해요!
- ▶ 농촌진흥청, 스마트 시설원에 국제 학술토론회 열어
- ▶ 대한민국 100년을 살린 농업, 100년의 가치를 더하다
- ▶ 농촌진흥청, 한국서부발전과 업무협약 체결
- ▶ ‘미스트롯’ 송가인, 국제농업박람회 알린다
- ▶ 전남 농특산물, 서울 골목상권시장 진출한다
- ▶ 전남 10대 우수 브랜드쌀 수도권 릴레이 홍보
- ▶ 국산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 이제 “새벽배송”으로 만나요~
- ▶ 전남, 농경지 침수예방 배수개선사업 전국 최고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41

- ▶ 나주시, 농촌 일손 돕기 구슬땀 ... 영농철 농가 활력
- ▶ 담양군, "귀농인 안정 정착 도와요"
- ▶ 곡성군 토란,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에 선보여
- ▶ 곡성군, 넘버원 곡성멜론 수도권 학생들 식탁에 오른다
- ▶ 보성군, 강소농 팜파티 개최!
- ▶ 보성군, 보성 딸기가 세계 최고입니다!
- ▶ 화순군 청년 농업인 4-H회, '과제학습포 모내기'
- ▶ 해남군, 상반기 농민수당 6월 지급
- ▶ 영암군, 아프리카돼지열병 선제적 대응
- ▶ 영암군, "적극적인 예찰과 방제로 벼 먹노린재 피해 예방해야"
- ▶ 무안군, 양파 산지폐기 농가 자담 12억 원 전액 지원
- ▶ 영광군, 농촌 일손 돕기 추진
- ▶ 장성군,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에 총력
- ▶ 신안군, 벼농사규모화사업 영농작업 대행비 약정식 개최
- ▶ 신안군, 마늘 줄기 절단기 시연회 실시
- ▶ 진도군, "멋과 맛이 공존하는 팜파티" 개최

8. 해외 농업정보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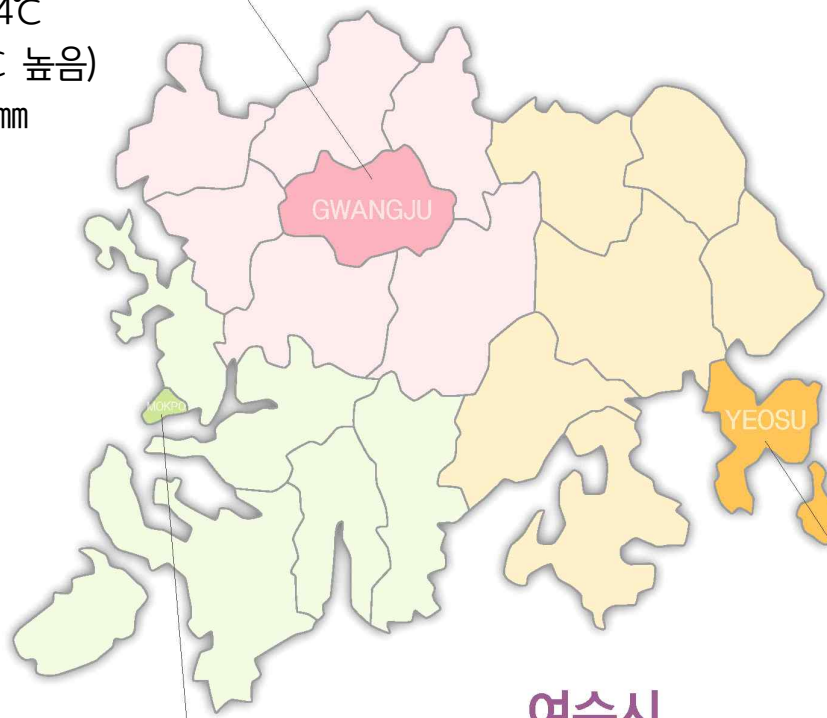
- ▶ 2019년 러시아 식품 트렌드 6선
-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06. 17. 시카고 선물거래소)

9. 농식품 빅데이터(재배기술) 정보제공 홈페이지 소개 61

- ▶ 농촌진흥청
- ▶ 농사로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광주광역시

- 평균기온 : 23.9℃
(평년대비 1.1℃ 높음)
- 최고기온 : 28.4℃
(평년대비 0.7℃ 높음)
- 최저기온 : 19.4℃
(평년대비 0.4℃ 높음)
- 강 수 량 : 7.1mm



목포시

- 평균기온 : 22.4℃
(평년대비 0.5℃ 높음)
- 최고기온 : 25.4℃
(평년대비 0.6℃ 낮음)
- 최저기온 : 19.4℃
(평년대비 0.6℃ 높음)
- 강 수 량 : 6.5mm

여주시

- 평균기온 : 22.6℃
(평년대비 1.2℃ 높음)
- 최고기온 : 25.1℃
(평년대비 0.7℃ 높음)
- 최저기온 : 20.0℃
(평년대비 1.1℃ 높음)
- 강 수 량 : 8.1mm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자료 출처 : 날씨누리

2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주요 병해충 발생상황

농촌진흥청에서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를 발표했으니 병해충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기 방제에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기관에서도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작물	· 예 보	병	· 줄무늬잎마름병, 잎도열병
		해충	· 열대거세미나방, 조명나방, 벼물바구미 등
채소	· 예 보	병	· 역병, 탄저병, 바이러스병, 덩굴마름병,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
		해충	· 응애류, 총채벌레류, 가루이류, 진딧물류 등
과수작물	· 예 보	병	· 배검은별무늬병, 자두곰보병, 참다래궤양병, 복숭아세균구멍병·잣빛무늬병 등
		해충	· 복숭아순나방, 응애류, 진딧물류, 잎말리나방, 감꼭지나방,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등

※ 본 병해충 발생정보는 <http://nongsaro.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올해 사과·복숭아 착과수 및 배 봉지수 전년 대비 증가 전망



6월 주요 과일 출하 및 가격 전망 (전년 대비)

	사과	배	감귤 (하우스온주)	포도	복숭아
6월 출하량	감소	감소	증가	감소	증가
6월 가격	상승	상승	하락	상승	하락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과 생육 및 착과수

📍 생육 : 올해 사과 생육상황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양호

- 5월 말 기준, 2019년산 사과 생육상황은 전반적으로 냉해가 심했던 전년보다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경북 포항·경주·예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4월 초 저온과 개화기 잦은 강우로 전년보다 생육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편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착과수 : 올해 사과 착과수 전년 대비 5% 증가

- 올해 사과 착과수(1차 적과)는 전년보다 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생육기 기상 여건이 양호하여 동해 및 봄철 저온 피해 발생이 전년보다 적었기 때문이다.
- 다만, 영남 지역 착과수는 경북 경주·포항, 경남 거창 등 일부 지역에서 해거리와 개화기 저온 피해 영향이 다소 있어 여타 시군에 비해 증가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품종별로는 지난해 상대적으로 저온 피해가 심했던 홍로와 감홍의 착과수가 전년 대비 각각 6%, 16% 증가하여 타 품종에 비해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사과 품질에 영향을 끼치는 중심화 결실률은 생육이 양호하여 대체로 전년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저온 영향으로 중심화가 고사하면서 측화 및 액화에 착과를 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배 생육 및 착과수

생육 : 올해 배 생육상황 전년보다 양호

- 2019년산 배 생육상황은 개화기 저온 피해가 전국적으로 극심했던 전년보다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5월 초 저온으로 초기 비대는 전년 및 평년보다 지연되고 있으며 특히, 타 지역에 비해 개화가 빨랐던 남부 지역(전남 순천, 경남 진주·하동, 울산 등) 일부 농가에서는 전년보다 냉해 피해가 커 생육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5월 말 기준, 병해충 발생은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강우 일수가 적어 검은별무늬병(흑성병) 발병률이 전년 대비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5월 중·하순 고온으로 응애류와 진딧물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착과수 : 올해 배 착과수 전년보다 증가

- 올해 배 착과수는 저온 피해로 착과가 크게 불량했던 전년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배 최대 주산지인 전남 나주는 일부 냉해가 있었으나, 수차례의 인공수분 작업으로 결실률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북 상주 지역은 개화기 저온 피해와 5월 상순에 내린 우박 피해로 상품과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올해 배 착과수가 증가함에 따라 배 농가에서 적과 작업량이 많아졌고, 봉지 작업 시기도 전년보다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포도 생육 및 면적

📍 생육 : 시설 및 노지포도 생육상황 전년보다 양호

- 올해 시설포도 생육상황은 전년에 비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해 및 냉해 피해는 전년보다 적었으나, 4월 초 일시적인 기온 하락으로 인해 경북 김천, 충북 영동, 충남 천안, 전북 남원 등의 무가온 일부 농가에서 냉해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노지포도 생육상황도 대체로 전년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4월 초 저온으로 인해 경남 거창, 경북 김천·경산·상주·영천 일부 농가에서 꽃눈 피해와 화류 현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면적 : 샤인머스캣 재배면적 증가세 지속

- 올해 포도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3% 증가한 1만 3,191ha로 추정된다.
- 그동안 가격이 높았던 샤인머스캣 재배면적은 품종 전환과 신규 식재가 늘면서 전년보다 96%나 증가한 1,867ha로 조사되었다. 캠벨얼리는 전년 대비 6% 감소하였으며, 거봉 재배면적도 샤인머스캣으로 품종을 갱신한 농가가 늘어 4% 감소하였다. MBA와 델라웨어는 전년보다 각각 2%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포도 성목면적은 전년보다 2% 감소한 1만 1,147ha로 추정된다. 시설포도는 유목이었던 샤인머스캣의 성목화로 전년과 비슷한 반면, 노지포도는 샤인머스캣으로 품종갱신이 늘어 전년 대비 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복숭아 착과수 및 출하

📍 착과수 : 올해복숭아 착과수 전년보다 증가

- 올해 복숭아의 단위면적(10a)당 착과수는 전년보다 동해 및 냉해 피해가 적어 전년 대비 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품종별로는 천도계와 유모계가 전년 대비 각각 4%, 6%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4월 초 냉해 영향으로 선프레·천홍(천도계), 단금도·경봉·홍금향(유모계) 등의 품종에서 수정이 다소 불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출하 : 6월 복숭아 출하량 전년보다 증가 전망

- 올해 복숭아 출하시기는 3월 하순 이후 기온 하락으로 개화 시기가 늦춰지면서 전년보다 다소 늦을 것으로 예상된다.
- 6월 복숭아 출하량은 조생종 생산량 증가로 전년보다 많을 전망이다. 품종별로는 천도계와 유모계 모두 전년보다 각각 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9. 06. 17. 기준 / 단위: 원)

식량작물

쌀(일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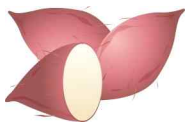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7)	1주일전 (6/10)	전년대비
20kg	48,980	49,180	↑ 9.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180	44,675	39,533	↑ 23.9

콩(백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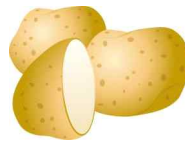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7)	1주일전 (6/10)	전년대비
35kg	197,200	197,200	↑ 8.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94,200	181,600	154,533	↑ 27.6

고구마(밤)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7)	1주일전 (6/10)	전년대비
10kg	37,800	35,000	↓ 15.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6,960	44,465	31,080	↑ 21.6

감자(수미)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7)	1주일전 (6/10)	전년대비
20kg	22,300	26,000	↓ 22.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6,000	28,850	27,077	↓ 17.6

채소류

배추(봄)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7)	1주일전 (6/10)	전년대비
10kg	6,100	5,060	↑ 5.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	5,775	5,282	↑ 15.5

양배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7)	1주일전 (6/10)	전년대비
8kg	5,300	5,100	↑ 18.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6,104	4,475	5,012	↑ 5.7

오이(다다기계통)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7)	1주일전 (6/10)	전년대비
100개	33,667	30,333	↑ 1.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4,267	33,083	31,687	↑ 6.2

애호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7)	1주일전 (6/10)	전년대비
20개	15,000	14,700	↑ 10.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0,120	13,600	13,820	↑ 8.5

채소류

건고추(화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7)	1주일전 (6/10)	전년대비
30kg	568,600	568,600	↓ 5.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73,600	600,000	365,000	↑ 55.8

풋고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7)	1주일전 (6/10)	전년대비
10kg	42,600	37,600	↑ 19.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4,160	35,550	35,947	↑ 18.5

마늘(깐마늘)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7)	1주일전 (6/10)	전년대비
20kg	100,000	125,000	↓ 31.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35,000	145,000	145,000	↓ 31.0

양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7)	1주일전 (6/10)	전년대비
20kg	8,400	11,200	↓ 43.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2,000	14,750	15,437	↓ 45.6

당근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7)	1주일전 (6/10)	전년대비
20kg	33,600	31,400	↓ 7.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2,120	36,250	31,787	↑ 5.7

대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7)	1주일전 (6/10)	전년대비
1kg	1,540	1,560	↑ 11.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516	1,380	1,554	↓ 0.9

파프리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7)	1주일전 (6/10)	전년대비
5kg	18,300	19,000	↓ 1.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8,560	18,650	16,210	↑ 12.9

수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7)	1주일전 (6/10)	전년대비
1개	14,300	15,500	↓ 6.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8,400	15,300	13,493	↑ 6.0

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7)	1주일전 (6/10)	전년대비
10kg	17,000	19,600	↓ 11.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8,880	19,100	16,263	↑ 4.5

방울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7)	1주일전 (6/10)	전년대비
5kg	15,800	16,400	↑ 13.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7,560	13,900	13,193	↑ 19.8

과일류

사과(후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7)	1주일전 (6/10)	전년대비
10kg	45,000	42,000	↑ 14.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1,040	39,400	41,067	↑ 9.6

배(신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7)	1주일전 (6/10)	전년대비
15kg	59,200	54,400	↑ 56.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3,360	37,800	44,217	↑ 33.9

참다래(수입)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7)	1주일전 (6/10)	전년대비
10kg	41,800	41,800	↓ 1.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	42,400	43,800	↓ 4.6

축산물(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7)	1주일전 (6/10)	전년대비
100g	8,308	8,039	↑ 5.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973	7,870	7,240	↑ 14.8

닭고기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7)	1주일전 (6/10)	전년대비
1kg	5,135	5,220	↑ 8.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330	4,720	5,433	↓ 5.5

특용작물

참깨(백색)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7)	1주일전 (6/10)	전년대비
30kg	498,600	499,200	0.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9,200	498,450	526,333	↓ 5.3

느타리버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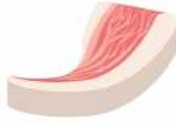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7)	1주일전 (6/10)	전년대비
2kg	11,400	11,600	↓ 17.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2,640	13,865	13,965	↓ 18.4

새송이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7)	1주일전 (6/10)	전년대비
2kg	6,600	7,200	↓ 10.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200	7,350	7,810	↓ 15.5

돼지고기(삼겹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7)	1주일전 (6/10)	전년대비
100g	1,976	1,896	↑ 2.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007	1,932	2,191	↓ 9.8

계란(특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7)	1주일전 (6/10)	전년대비
30개	5,028	5,137	↑ 27.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206	3,949	5,710	↓ 11.9

축산물(소매가)

우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7)	1주일전 (6/10)	전년대비	
1L	2,616	2,617	↑	3.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619	2,522	2,540	↑	3.0

※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9. 06. 17. 기준 / 단위 : 원)

한우(천원/600kg)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5,606	5,513	5,608	↑ 1.7	0.0
거세	6,856	7,018	7,063	↓ 2.3	↓ 2.9

한우송아지(천원/6~7월)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3,321	3,302	3,251	↑ 0.6	↑ 2.2
수	4,223	4,190	4,128	↑ 0.8	↑ 2.3

육우(천원/60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149	3,306	3,348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4.7	↓ 5.9

젖소수송아지(천원/7일령)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435	424	278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2.6	↑ 56.5

돼지(천원/11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91	386	450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3	↓ 13.1

육계(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1,080	1,000	942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8.0	↑ 14.6

계란(원/특란10개)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826	844	596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2.1	↑ 38.6

오리(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2,200	2,200	1,869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0.0	↑ 17.7

*자료 출처 :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 사과·배 주산지에서 과수화상병 확산 추세

- 충주 등 추가 확진농가 7곳 매몰...의심 증상 발견된 11곳 정밀검사 중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7일 충북 충주의 사과 과수원 5곳과 제천의 사과 과수원 1곳, 경기 안성 배 과수원 1곳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을 확진했다.
- 이번에 확진판정이 나온 과수원 7곳은 지난해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으로부터 약 5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중점관리구역에 속한다.
- 현재 충북 충주와 제천 등의 사과 과수원 22곳에서 과수화상병 의심증상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과거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았던 충북 음성 사과과수원 2곳에서도 의심증상이 발견되어 과수화상병 발생 범위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 현재 농촌진흥청과 각 지역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는 이달 3일부터 14일까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의 사과·배 과수원을 중심으로 2차 발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정준용 과장은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과수화상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과수농가에서는 올해 새로 자란 사과·배 나뭇가지를 중심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여부를 점검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벼 최소경운 이앙농법으로 온실가스 배출 줄인다

- 최소경운 벼 이앙농법 활성화를 위한 현장연사회 개최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10일 국립식량과학원 시험포장에서 농업분야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개발한 벼 최소경운 이앙농법 현장연사회를 개최한다.
- 이번 연사회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대응 정책을 반영하고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식량작물 재배기술 보급을 위해 마련했다.
-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160만 톤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농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 예측량의 7.9%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관련된 감축기술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한 실정이다.
- 최소경운 이앙은 모를 심을 부분만 최소한 경운해 이앙하는 기술로 이앙 전 경운, 로터리, 써래질 작업을 생략할 수 있으며 농기계의 가동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다.
- 이를 통해 벼 이앙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약 21% 줄일 수 있고, 노동력과 생산비를 일반 재배 대비 약 5.2% 절감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최소경운 이앙농법의 확립과 보급을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벼 최소경운 이앙기술의 표준화,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분석하고, 최소경운 이앙기에 맞는 이앙 기술과 물 관리 방법 등을 확립했다.
- 또한,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성 분석 및 현장 실증 등을 위한 협업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출처 : 농촌진흥청

호밀 씨알, 노랑게 익고 단단해지면 수확하세요

- 농촌진흥청, 채종 적기와 저장성 높이는 방법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품질 좋은 호밀 씨알을 거두는(채종) 시기와 채종 후 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 농가에서는 호밀 이삭이 팥 지 보통 50일 이후에 수확한다. 이삭 전체가 노란빛(황색)으로 씨알이 단단할 때 따면 품질이 좋다.
- 이삭을 손톱으로 눌러서 눌리지 않는 정도를 수확 적기로 본다. 이때 거두면 이삭에서 분리가 쉬우며, 탈곡기에서 손상되는 비율도 줄어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다.
- 다만, 올해는 5월과 6월 기온이 30℃를 웃돌고 가뭄이 겹치면서 노란색을 띠어도 이삭이 겉말라 씨알은 무를 수 있어 채종 시기를 잘 판단해야 한다.
- 호밀 종자의 수분량을 13%로 맞춰주면 저장성을 높일 수 있다.
- 수확한 직후 호밀의 수분량은 16% 정도다. 거둔 호밀 씨알을 멍석에 깔아 하루 이상 햇볕에 말리거나 40℃이하로 건조기에서 말리면서 수분량을 낮춘다.
- 종자는 10℃~15℃, 습도 75% 이하인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상온에 둘 경우 훈증 처리를 해야 해충 피해를 막을 수 있다.
- 훈증할 때는 사람이나 동물이 드나들 수 없는 밀폐된 곳에서 권장 기간 동안 약제 처리한다. 이후 하루 이상 바람이 잘 통하게 한다.

*출처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장마철 앞두고 농작물 사전관리 당부

- 집중호우 · 강풍 피해 예방 위해 물 빠짐 길 · 오래된 시설물 점검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올해 장마를 대비하고 집중호우와 강풍에 의한 농작물과 농업 시설물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관리를 당부했다.
- 지난해 집중호우와 강풍(태풍 포함)으로 인해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에 발생한 피해면적은 46,083ha로 2017년 4,674ha보다 약 9.8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이에 따라 집중호우 등이 예상되는 장마 전 배수로(물 빠짐 길) 정비와 밭이랑을 높게 하는 등 농경지 관리를 하고, 농작물이나 시설물이 물에 잠겼을 경우를 대비해 대응요령을 알아두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벼는 농수로에 발생한 잡초를 없애고 논두렁이 무너지지 않도록 물길을 만들어 주는 등 사전 정비를 한다.
- 논두렁에 물길을 만들 때에는 물살에 흙이 휩쓸려 무너지지 않도록 비닐로 땅 표면을 덮어주거나 논물 관리를 할 수 있는 '개량형 물꼬' 등을 설치한다. 또한 산간지의 계단식 논에서는 여러 곳에 물길을 크게 만들도록 한다.
- 집중호우로 인해 벼가 물에 잠겼을 경우, 벼 잎 끝만이라도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신속히 논물을 빼 공기와 접촉 시킨다. 물이 빠진 뒤에는 새물로 걸러대기를 하여 뿌리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
- 밭작물이나 원예작물은 물 빠짐이 좋도록 이랑을 높인다.
- 노지에서 재배하는 작물은 줄 받침대를 설치해 강풍에 의한 쓰러짐을 예방한다. 많은 비로 겉흙이 씻겨 내려가 작물의 뿌리가 땅 위로 나왔을 경우에는 신속히 흙을 덮어주고 바로 세워준다.

- 경사지에 위치한 과수원은 빗물을 한 곳으로 모아 유속을 줄일 수 있도록 집수구를 설치하고, 부직포 등으로 땅 표면을 덮어 토양의 유실을 막아야 한다.
- 마른날이 계속되다가 폭우가 내리면 과실수의 양·수분 흡수가 높아져 열매가 터지는 '열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평소에 물을 주기적으로 줘야 한다.
- 수확기에 다다른 열매가 떨어지면 가공용으로 이용하고, 덜 익거나 상처가 난 열매는 병해충 발생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땅에 묻어 2차 감염을 막아야 한다.
- 강풍과 비바람이 예보될 경우에는 미리 가지를 유인해 묶어주고, 원줄기에는 지주목을 설치해 쓰러짐을 대비 한다.
- 오래된 축사는 축대와 지붕, 벽 등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살펴보고, 축사 안의 습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환기시설을 점검한다.
- 특히 가축 감염과 축사 내에 질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미리 방제장비와 소독 약제를 준비하고, 사료가 물에 젖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 시설하우스는 바깥의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우스 주변에 물길을 만들고, 비닐 교체가 예정된 하우스는 미리 비닐을 제거해 집중호우나 강풍에 의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 또한 시설하우스 안에 설치한 전기·전자 장비를 미리 점검해 누전을 방지한다. 강풍이 예보될 경우 비닐하우스를 밀폐하고 골재와 비닐이 밀착될 수 있도록 끈으로 단단히 고정한다.

*출처 : 농촌진흥청

고품질 고구마 생산 위한 본밭 관리 요령

- 생육 초기에 물 충분히 주고 김매기로 잡초 없애야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대부분의 농가에서 고구마 심기가 마무리됨에 따라 안정적인 고구마 생산을 위한 재배지 관리 요령을 소개했다.
- 고구마를 본밭에 정식하는 시기는 4월 중순부터 시작해 일반적으로 6월 중순까지 마무리 된다.
- 정식 후 50일~60일이 지나면 덩이뿌리가 형성되고 몸집이 커지는데, 이 시기에 적절한 토양 수분 및 잡초 관리가 중요하다.
- 덩이뿌리 형성에는 토양 수분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육 기간 동안 적절한 수분 관리가 필요하다.
- 초기에는 뿌리가 잘 내리도록 자동물뿌리개(스프링클러)나 분수호스 등의 장비를 활용해 2시간 정도 충분히 물을 주어야 효과적이다. 물은 한낮보다는 오후 늦게 주는 것이 좋은데, 한낮에는 식물체가 흡수하는 물의 양보다 공기 중에 날아가는 양이 더 많아 비효율적이다.
- 생육 기간에 고온으로 가뭄이 계속되면 일주일에 1회 정도 물을 줘 토양 수분을 알맞게 유지한다. 생육 초기에 뿌리가 잘 내리지 못하면 덩이뿌리 수가 적어지며, 덩이뿌리가 잘 형성되어도 비대기에 수분이 부족하면 수량 감소로 이어진다.

- 또한, 정식 후 넝쿨이 우거지기 전에 김매기를 해줘야 고구마 수량을 높일 수 있다.
- 잡초가 많아지기 전에 겉흙의 딱딱한 층을 깨뜨려 주면 힘도 적게 들고 고구마 생육에도 좋다.
- 김매기를 해주면 잡초를 없애는 동시에 토양에 공기가 잘 통하게 되어 김매기를 하지 않는 경우 대비 수량이 40%~50% 증가한다.
- 가뭄이 지속되면 덩이뿌리 성장이 늦어지기 때문에 적기보다 1개월 정도 늦춰서 수확하면 수량 감소를 줄일 수 있다.
- 특히, 점질(호박)고구마는 분질(밤)고구마에 비해 덩이뿌리가 늦게 커지기 때문에 140일 이상 재배한 뒤 수확하는 것이 좋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노재환 소장은 "최근 재배기간 동안에 이상기후로 가뭄 및 폭염 발생이 늘고 있어 적절한 토양 수분 관리와 김매기 작업을 해준다면 고품질의 고구마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장마철 농기계 침수에 주의하세요”

- 농촌진흥청, 장마철 농기계 보관과 침수 농기계 손질 요령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강우가 잦은 여름철을 앞두고 농가에서 농기계 보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빗물 또는 습기 등으로 농기계가 녹슬거나 부식되지 않도록 농기계에 묻어있는 불순물을 깨끗이 씻어내고 기름칠을 해 둔다.
- 농기계를 야외에 보관할 때는 비를 맞지 않도록 비닐 또는 방수포장으로 잘 덮어주고 바람에 날려 벗겨지지 않도록 단단히 매어둔다.
- 침수된 농기계는 바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서둘러 정비를 해야 성능이 유지되고 과다한 수리비를 줄일 수 있다.
- 침수된 농기계는 기종에 상관없이 시동을 걸면 안 된다. 조치 없이 시동을 걸면 엔진이 손상되거나 배선이 타버릴 수 있다.
- 먼저, 농기계를 깨끗한 물로 씻어 오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물기가 다 마른 다음 기름칠을 한다.
- 각종 필터, 엔진·기어오일 등 윤활유, 연료 등도 모두 빼내 새 것으로 교환한다.
- 배터리가 있는 농기계는 연결된 전선을 분리한 후 마른 걸레로 물기를 없애고 배터리 단자에 그리스를 칠한다. 단,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경우에는 새 것으로 바꾼다.
- 엔진 속에 흙탕물이나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농기계 전문 기술자의 도움을 받아 엔진을 정비 받는다.
- 농기계 관리와 정비요령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업기술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의 '농자재→농기계→농기계관리'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동영상과 사진이 수록돼 있어 쉽게 따라할 수 있다.

*출처 : 농촌진흥청

구기자에 발생하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의 특성 및 방제

-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 -

-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는 토마토, 고추 등 가지과 작물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900여종의 식물을 감염시킴
-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를 매개하는 꽃노랑총채벌레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기주를 흡즙 하면 다음 세대 역시 바이러스 전염 능력을 갖게 됨
- 2003년 충남 예산 파프리카 농가에서 최초 발견 후 전국적 확산됨
- '18년 충남 청양 구기자 농가에서 바이러스 TSWV 발생 확인
- 구기자에 TSWV 감염 시 잎이 원형반점, 괴저반점, 황변 등의 증상을 보이며, 새 순이 고사하고, 가지에 괴저증상이 나타나 생육이 멈춤
- 그러나 구기자의 생육이 빨라서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은 가지에서는 정상적으로 성장함

-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발생 요인분석 및 전망 -

- 보독충은 영숙전염되며 토양 중에서 번데기 및 성충 형태로 월동하여 시설재배의 경우 전염원이 만연해 있음
- 매개충이 꽃잎 속에서 서식하여 약제 방제 효과가 낮음
- 구기자는 낙엽성 활엽관목으로 삽목에 의한 번식을 하여 농가에서는 다년생으로 재배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TSWV 발생 구기자 농가 주변 고추 포장에서 TSWV 감염 확인, 주변 가지과 작물에 전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방제 -

-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는 기주범위가 넓고 꽃노랑총채벌레 의한 영속전염이 가능하므로 매개충 발생 초기에 방제를 철저히 하여 구기자와 주변 작물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 구기자 밭 주변 매개충의 서식처인 잡초를 제거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작물을 가능한 멀리 배치하여 포장위생을 철저히 함
- 약제방제 : 등록약제를 1주간격 2-3회 초기방제, 태양열 소독
- 자료편집 :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팀



*출처 :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닭 사육농가 폭염 피해 예방 선제 대응 나서

- 농식품부 · 육계협회와 공동으로 기술교육 추진...사전 관리요령 제시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한 닭 사육농가 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 최근 4년간 폭염 시작일이 점차 빨라지고 폭염 일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축산농가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고온으로 폐사 등 피해가 발생한 전체 가축 중 가금 비중이 90%이상으로 집계됐다.
- 폭염 시작일: (2015년) 5월26일 → (2016년) 5월22일 → (2017년) 5월19일 → (2018년) 4월21일
- 폭염일수: (2015년) 10.1일 → (2016년) 22.4일 → (2017년) 14.4일 → (2018년) 31.4일
- 2018년 가축 피해는 908만 마리, 닭·오리 등 가금류 902만 마리
- 이에 따라 11일부터 24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육계협회와 공동으로 닭 사육농가의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 이번 교육은 지난해 폭염피해가 컸던 경기 포천, 충북 음성, 충남 천안, 전북 익산, 경북 상주 등 9개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뤄지며, 교육내용은 고온기 피해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닭 사육관리와 시설환경관리 요령 등이다.
- 한편 폭염으로 인한 닭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육밀도를 평소보다 10~20% 정도 낮추고, 급수온도는 10~20℃로 맞추는 뒤 물 1리터당 비타민 C 0.1g과 사리칠산(아스피린) 0.3g 넣어주면 좋다.

- 사료가 변질되지 않도록 사료빈(사료통)에 단열처리를 하고, 하루 중 가장 시원한 시간대인 이른 새벽이나 저녁 시간에 닭이 사료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 농가는 열량지수를 고려한 올바른 환기시설관리와 쿨링패드(단열판) 사용을 통해 내부 온도를 낮춰 닭의 고온스트레스를 방지해야 한다.
- 무창계사(창이 없이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이용하는 닭 사육시설)의 경우 사육장 내에 초속 2미터 내외의 풍속으로 공기가 순환할 수 있도록 사육 규모에 맞게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
- 터널식 환기계사에서 쿨링패드를 설치하면 내부온도를 7~8℃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쿨링패드는 외부습도에 따라 효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외부 습도가 80%이상일 경우 계사내부의 온·습도 유지를 위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정준용 과장은 "올 여름 폭염일수도 10.5일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폭염에 취약한 가금 등 가축사육농가의 시설관리에 각별한 주의와 관리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거세한우 잘 키우는 최고의 기술은?

- 6~7개월령 거세, 섬유질배합사료 먹여 사료비 부담 덜어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한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 수준이 높은 거세우 사육 선도 농가를 소개했다.
- 축산물품질평가원과 지역 축협은 전국 상위 농가(2017년 거세우 출하 농가 100위 이내 농가의 육질 1+등급 출현율은 95.7%. 그 중 15곳.)와 지역 상위 농가(지역 축협에서 추천한 우수 농가 74곳)를 포함한 89농가를 방문 조사했다. 선도 농가는 일반 현황, 비육 기술, 생산비 절감 기술 등을 평가해 선정했다.
- 선도 농가는 출하 시 체중이 전국 평균보다 많고 시기도 빨랐다.
- 선도 농가의 거세우는 774.9~789.3kg로, 전국 평균인 745kg보다 무거웠다. 29.7~30.4개월령에 출하되고 있어 31.4개월령인 전국 평균보다 빨랐다.
- 수송아지는 주로 6~7개월령에 거세했다. 구입한 송아지는 8~9개월령에 거세했는데, 이는 경매 시장의 거래 환경 때문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 육성기는 6~9개월령, 비육전기 13.9~14.3개월령, 비육후기는 23개월령부터로 비육 단계를 설정했다.
- 사료 주는 방법도 달랐다. 선도 농가의 50%(44농가)는 섬유질배합사료(TMR)를 먹였다. 전국의 상위권 농가 60%는 TMR을 먹이고 있었다.

- 출하 성적이 좋을수록 TMR 비율이 높았는데, 전체 사육 기간 중 육성기부터 비육전기까지 먹이는 농가가 많았다.
- TMR 비율이 높은 전국 상위 농가에서 거세우 한 마리를 키우는 데 드는 사료비는 305만 원으로, 320만 원이 드는 지역 상위 농가보다 적었다.
- 이와 함께 대상 농가 대부분은 일관사육(비육용 송아지 생산을 위해 번식과 비육우 사육을 병행하는 사육형태)을 하며, 거세우 비율은 52~58.8%였다.
- 번식우를 키워 밀소(비육우로 사육하기 위해 선발된 송아지)를 공급하고, 3개월령에 이유(젖떼기)를 한다. 농가의 80% 이상이 육질 개선과 비육 촉진을 이유로 첨가제(생균제, 비타민제, 아미노산제제 등 사용)를 사용했다. 송아지 가격 부담으로 번식우로 자가 생산을 확대하려는 농가도 많았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만희 한우연구소장은 "높은 도체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육성기부터 등지방을 얇게 사육하고, 비육후기에는 농후사료를 너무 많이 주지 않도록 한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창덕궁에서 풍년 기원 손모내기 해요!

- 농촌진흥청, 13일 문화재청과 손모내기 행사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13일 창덕궁 청의정 일원에서 문화재청(청장 정재숙)과 함께 손 모내기 행사를 연다.
- 이 행사는 조선 시대 임금이 그해 농사의 풍흉을 가늠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궁궐 안에 경작지를 조성해 직접 농사를 짓던 '친경례(親耕禮)'를 되살린 것이다.
- 행사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창덕궁 후원에 입장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해 모를 직접 심어볼 수 있다.
- 행사장에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밥맛 좋은 쌀 '삼광'과 가공용 쌀 '설갱' 등 쌀품종들과 쌀빵, 쌀과자, 쌀국수 등 다양한 쌀 가공식품도 함께 전시된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재배환경과 노태환 과장은 "이번 행사가 우리 쌀과 농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가을에는 벼 베기 행사를 열어 우리 쌀의 가치와 소중함을 지속적으로 알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스마트 시설원에 국제 학술토론회 열어

- 네덜란드 등 5개국 전문가... 각국 정책과 연구 동향 소개 -

- 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세계 각 나라의 시설원에 분야 농업정책을 알아보고, 미래 농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스마트 농업과 수경재배, 정밀 양·수분 관리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마련했다.
-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시설원에 정책 동향과 '수경재배 연구현황·미래 방향'이다.
- 최근 시설원에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한 스마트 농업 형태로 전환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까지 국내 시설면적의 약 8%가 스마트팜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스마트팜 기반 기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는 '수경재배'이다.
- 그러나, 우리나라 농가 대부분은 비순환 수경재배를 채택하고 있고 친환경 순환식 수경재배 순환식 수경재배란 사용한 후 버려지는 배출액을 회수하여 소독 등을 거쳐 재사용하는 기술이며, 물과 비료 등 자원을 절약하고, 하천수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재배법이지만 시스템의 설치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음.
- 보급률은 약 10%에 머물고 있다. 버려지는 물과 비료 등 자원 절약을 위해서도 순환식 수경재배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 농촌진흥청 김경규 청장은 개회식 축사에서 "이번 토론회가 스마트 농업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시설원예와 수경재배의 연구 방향을 정립하고, 순환식 수경재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대한민국 100년을 살린 농업, 100년의 가치를 더하다

- 농촌진흥청, 19일~22일 서울 aT센터서 2019 농업기술박람회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센터, 서울시 양재동)에서 '농업기술 100년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2019 농업기술박람회'를 연다.

〈행사개요〉

- ◆기간: 2019. 6. 19(수) ~ 22(토), 4일간, 10:00~17:30
- ◆장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센터, 서울시 양재동) 1, 2 전시장
- ◆참가기관: 농촌진흥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농수산대학, 지방 농촌진흥기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협중앙회, 기업체 등
- ◆주요내용
 - 개막식(6.19, 11:00~12:00): 주제 영상 시청, 전시관 관람 등
 - 주제관: 우리 농업 100년 특별전시, 미래를 여는 스마트농업 기술 등
 - 체험관: '농촌! 서울에서도 통하네~',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업 등
 - 소통관: 지역 농업관, 농업기술산업관, 한국농수산대학교 홍보관, 농협관 등

- 박람회는 100년의 성과를 중심으로 농업의 미래 가치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특별 전시와 스마트농업 기술 프로그램은 이번 행사의 '백미'로 꼽히는 만큼 여유를 갖고 둘러보길 추천한다.
- 주제관에서 감상할 수 있는 <우리농업 100년 특별 전시>는 농업 기술의 가치에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마련했다. '농업인의 항일투쟁', '우리나라 농업 발전을 이끈 농업 성과', 기술 발전으로 달라진 '음식 문화', 씨앗 할아버지 '우장춘 박사' 등 흥미로운 내용이 가득하다.

- <미래를 여는 스마트 농업기술>은 미래 100년 농업 발전의 핵심기술인 '스마트 농업기술'을 살펴볼 수 있도록 초정밀 접목로봇, 드론을 활용한 농작물 재배기술, 생육측정을 위한 다양한 센서, 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등이 전시되어 있다.
- 폭넓은 연령대의 도시민을 위한 농촌체험과 올바른 농식품 관련 지식 전달을 위한 행사도 눈여겨볼 만하다.
- <농촌! 도시에서도 통하네~>는 농업인들과 진로 상담을 하며 농식품 가공을 체험할 수 있다. 농촌의 놀이 문화와 마을 공연을 즐기며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면 좋다.
-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2019 농업기술박람회」는 농업과학기술 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서의 농업·농촌의 잠재력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대한민국 최고의 농업기술 대축전이다."고 하며, "농업인들에게는 최신 농업기술과 정보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고, 일반인들에게는 농업의 새로운 가치와 우리 농업의 미래 비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한국서부발전과 업무협약 체결

- 농업연구분야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공동 연구협력 추진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6월 12일(수), 한국서부발전(주) 이사회 회의실에서 한국서부발전(사장 김병숙)과 미래형 스마트팜을 친환경 연료전지와 연계하는 농업연구분야 신재생에너지 활용 공동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이번 협약으로 농촌진흥청은 국내외 농업 R&D 시설 등 농업분야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에너지 전환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정부혁신에 기여할 계획이다.
- 협약의 주요 내용은 농진청의 국내·외 농업 R&D 시설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지원, 한국서부발전의 연료전지 등 신재생 설비 설치 및 운영관리, 냉·난방열 공급에 대한 상호협력이다.
-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가진 기술과 자원을 활용하여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였다.
- 협약식에서 황규석 농촌진흥청 차장은 "온실 등 농업R&D시설에 친환경 연료전지 기술을 결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동시에 발생하는 열로 냉·난방열을 공급 받는 이상적인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 농촌진흥청



‘미스트롯’ 송가인, 국제농업박람회 알린다

- 12일 홍보대사 위촉식...“대한민국 넘어 세계인에게 알려나갈 것” -

- 국제농업박람회는 12일 최근 인기 트로트 가수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송가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 국제농업박람회는 인지도 높은 홍보대사를 위촉해 박람회 홍보활동 및 관람객 유치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 올해 국내외 관람객 45만 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국제농업박람회는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는 주제아래 ‘미래를 꿈꾸는 농업, 여성이 바꾸는 세상’이라는 부제로 진행된다.
- 이에 끊임없이 노력해 얻어진 실력으로 전남을 넘어 대한민국 1등으로 나아가는 당찬 송가인의 브랜드 이미지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과 함께 하려는 ‘2019국제농업박람회’ 홍보 콘셉트와 맞아떨어져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됐다.
- 김영록 도지사는 “송가인 씨의 당찬 이미지가 미래농업을 이끌어나가려고 군분투하는 청년과 여성 농업인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며 “송가인 씨를 통해 많은 이들이 국제농업박람회를 찾고, 농업에 대해 폭넓게 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다가오는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일원에서 펼쳐지는 2019국제농업박람회는 국내외 45만 관람객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개 나라 380개 기관, 단체,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출처 : 전라남도



전남 농특산물, 서울 골목상권시장 진출한다

- 전남도, 2020년 개장하는 서울시 도농상회와 입점 추진 -

- 전라남도는 서울시와 손잡고 서울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서 전남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전라남도는 14일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지역 우수 농특산물 생산농가와 관계 공무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도농상회에 입점할 지역별 우수 농특산물 생산자 간담회를 가졌다.
- 간담회에서는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에서 소상공인 참여 확대와 매출 향상을 위한 서울 도농상회 조성 운영계획을 설명하고, 생산자들과 입점 상품과 물류에 대해 토론했다.
- 서울시는 2020년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에 서울 도농상회 15개소 내외를 조성한다. 도농상회는 전국 자치단체와 직거래 체계를 구축해 지역에서 생산하는 우수 농산물과 특산품을 공급받아 판매할 계획이다.
- 전라남도는 지역의 우수 농수특산물이 도농상회에 입점할 수 있도록 생산 및 제도가공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지난해 구축한 수도권 농산물 공동물류시스템을 통해 산지에서부터 서울까지의 유통비도 대폭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 김영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서울시 도농상회를 통해 전남 농특산물을 서울시민들이 많이 애용하길 기대한다”며 “서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활기를 찾을 때까지 전남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적극 공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



전남 10대 우수 브랜드쌀 수도권 릴레이 홍보

- 올 한 해 1천억 매출액 목표...제주영남권 이어 2개월간 홍보마케팅 -

- 전라남도는 2개월 동안 농협 지역본부와 공동으로 경기 성남, 일산 등 수도권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릴레이 홍보·마케팅 행사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 전국 릴레이 홍보·마케팅 행사는 전남 우수 브랜드쌀 판매액 1천억 원 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4~5월 부산·양산·김해 등 영남권에 이어 6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판매액은 890억 원이었다.
- 그동안 제주·영남권 홍보·마케팅 행사에선 현지 주요 물류업체, 소비자들의 구매의욕 반응이 매우 높게 나타나 전남 쌀 판매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 이번 수도권 전남 10대 브랜드 쌀 릴레이 홍보·마케팅 행사에는 올해 우수 브랜드쌀로 선정된 10개 시군 경영체가 참여했다. 전남쌀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샘플쌀 및 전남산 양파 1망(3.0kg) 썩을 증정품으로 제공해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파 홍보 및 소비 촉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은 일반쌀에 비해 포대당(20kg) 평균 1만원정도 높게 판매되고 있다. 해남 한눈에반한쌀의 경우 전국 신세계 이마트 143개 매장에서 필수 브랜드로 고정 입점은 물론 가격 또한 포대당(20kg) 8만 4천 원으로 국내 특수미를 제외하고는 전국 최고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출처 : 전라남도

국산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 이제 “새벽배송”으로 만나요~

- 새벽배송업체 ‘오아시스마켓’에 농공상기업 전용판매관 구축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새벽배송업체인 ‘오아시스마켓’과 협력하여 6월 12일 농공상기업의 전용판매관인 ‘농식품 찬들마루’를 오픈했다.
- ‘오아시스마켓’은 농수산물 생산자 비영리단체인 ‘우리생협’과 함께 2016년 오프라인 매장으로 시작해 최근 온라인몰 새벽배송업체로 급성장중인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이다.
- 모바일 유통채널의 발달과 함께 온라인 쇼핑과 새벽배송이 유통의 화두로 부상하는 시장변화에 발 맞춰, 농공상기업 제품의 판로와 국내산 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해 새벽배송 서비스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오아시스마켓’에 전용판매관을 구축하였다.
- ‘오아시스마켓’의 농공상기업 제품 전용판매관인 ‘농식품 찬들마루’에 ‘선한 농부의 마음을 담다’를 슬로건으로 국산 농산물로 만든 농공상기업 우수 제품 130여 품목을 우선 입점하고 추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현재, 용산역에 자리 잡은 농공상기업 오프라인 전용판매관인 ‘농식품 찬들마루’와 전국단위 온라인 전용매장인 ‘전국우체국쇼핑몰(mall.epost.go.kr)’에 이어, 이번에 추진된 ‘오아시스마켓’은 온·오프라인 매장을 동시 운영하고 있어, 중소식품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인 판로를 확보하여 농공상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전남, 농경지 침수예방 배수개선사업 전국 최고

- 신규 착수 8지구기본조사 5지구로 국비 1천136억 추가 확보 -

- 전라남도는 해마다 상습 침수로 어려움을 겪는 농경지 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비로 국비 1천136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 전국 36개 신규 지구와 기본조사 28개 지구 가운데 전남이 각각 8개 지구와 5개 지구로 가장 많은 사업량을 확보했다.
- 배수개선사업은 홍수 발생 시 침수피해가 되풀이되는 50ha 이상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 신규 착수지구 8곳은 강진 풍동, 신안 감정, 장흥 삼산, 나주 중포, 담양 우치, 보성 칠동, 순천 원창, 영광 신월 지구다.
- 앞으로 주변 현황조사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세부 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착공하게 된다. 공사 완료 시까지 597억 원의 국비를 약3년간 지원받는다.
- 기본조사 지구로 선정된 완도 충도, 해남 황산, 담양, 보성 안심, 나주 내기 5개 지구에 대해선 농식품부에서 기본계획을 세운 후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추정 사업비는 539억 원이다.
- 앞서 전라남도는 연초에 광양 선소, 무안 중등포 등 28개 지구의 2019년 배수개선사업비 477억 원을 본예산에 확보해 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저지대 매립을 시행,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출처 : 전라남도



나주시, 농촌 일손 돕기 구슬땀 ... 영농철 농가 활력

-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 동참 총 350여명 농가 일손 투입

5.22~6.21 1달 간, 마늘, 양파, 과수 등 농가 30개소 대상 -

- 전남 나주시 공직자들이 영농철을 맞아 농촌의 부족한 일손 돕기에 발 벗고 나섰다.
- 5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한 달 간을 ‘봄철 농촌 일손 돕기 중점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적기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 이번 일손돕기는 고령, 독거, 장애인 농가 등 인력이 부족한 농가 30여개소를 선정했으며, 특히 적기 수확이 중요한 양파, 마늘 등 밭작물 및 열매숙기 작업이 한창인 과수농가를 중점으로 일손을 보태고 있다.
- 특히 올해는 시청 직원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들까지 동참해 350여명이 농촌 작업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릴 예정이다.
- 강인규 나주시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농촌 일손 돕기에 적극 참여해주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지쳐있는 농가에단비와 같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출처 : 나주시



담양군, "귀농인 안정 정착 도와요"

- 농업기술센터, 희망 귀농·귀촌 시설원예반 교육 개강 -

- 담양군(군수 최형식)이 지난 13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한 영농정착교육의 개강식을 개최했다.
- 이날 담양에 정착하고 싶은 예비 귀농·귀촌인 총 50명을 대상으로, 개강식에 이어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손동모 소장을 초빙해 시설원예 현황 및 재배기술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 군은 오는 9월까지 3개월 간 40시간에 걸쳐 우리군 주요재배작목에 해당되는 시설원예반의 과정을 편성해 딸기 수경재배기술 및 6차 산업화, 시설고추 및 토마토 시설재배, 포도시설재배,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활용기술 등의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 개강식에 참석한 예비귀농인은 “귀농을 혼자 준비하면서 막막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준비한 이번 교육을 통해 귀농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교육의 기대감을 나타냈다.
- 한편 올해 교육은 예년과 달리 기초영농반과 영농실습반, 시설원예반으로 교육 과정을 세분화해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 진행한 기초영농반과 영농실습반에는 총 46명의 예비농업인이 참여해 역량을 강화했다.

*출처 : 담양군

💬 곡성군 토란,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에 선보여

-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에서는 국내 전남 곡성군의 다양한 토란 가공식품이 소비자의 눈길을 끌었다.
- 전남 곡성군은 전국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최대 토란 주산지로 알려져 있다. 곡성군 토란웰빙식품명품화사업단에서는 이와같은 ‘곡성토란’의 인지도를 높이고, 새롭게 개발된 토란 가공식품을 홍보하기 위해 이번 페스티벌에 참가했다.
- 사업단은 페스티벌에서 기존에 개발한 깐토란, 토미칩, 토란 부각 등 토란 가공상품과 최근에 개발한 타로미수, 토란누룽지밥, 토란칩 등 토란 가공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조사와 홍보를 실시했다. 국내산 토란을 활용한 최초의 가공 상품에 소비자들은 흥미를 보이며 곡성 토란의 우수성과 효능 등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



*출처 : 곡성군



곡성군, 넘버원 곡성멜론 수도권 학생들 식탁에 오른다

- 학교 급식 과일공급업체에 조각과일용 곡성멜론 납품 시작 -

-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는 곡성 멜론이 지난 6일 8kg 250박스를 시작으로 경기 및 수도권 학교급식에 진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수도권 급식시장 진출은 곡성멜론농촌융복합산업화 사업단과 수도권 학교급식에 과일을 공급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아나나스푸드와의 연계를 통해 추진됐다. 곡성군은 6일부터 10월 말까지 매주 8kg 기준 500박스의 곡성멜론을 (주)아나나스푸드에 공급하기로 협의했다.
- (주)아나나스푸드는 서울, 수도권, 지방권 등 전국 초중고등학교 3,500개소, 공공급식, 단체급식, 어린이집, 요양원 등에 조각과일을 제조 및 납품하고 있다. 곡성군은 이번 컵 과일 및 조각 과일용 곡성멜론 납품을 통해 학교급식 시장의 수요 확대 및 생산농가 소득 증대에 큰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곡성멜론농촌융복합산업화사업단 담당자는 “급식용 곡성멜론의 첫 납품으로 수도권 학교급식이라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게 됐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곡성군은 납품업체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시민들에게 곡성멜론의 맛을 알리고, 생산농가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곡성군



보성군, 강소농 팜파티 개최!

- 보성군은 지난 11일 읍이면 체리 농장에서 보성 농업의 새로운 희망이 될 강소농 농가들과 가족 및 외부 초대객 30여명과 팜파티를 가졌다.
- 이날 팜파티는 강소농가에 6차 산업과 연계해 성장할 수 있는 농장 체험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컨설팅 전문강사와 함께 진행됐다. 또한, 강소농가들의 경영개선 토론회를 진행하여, 농장과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느낀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 농장에 재배되고 있는 체리 수확 체험과 더불어 보물체리 찾기, SNS 홍보 등 각종 이벤트가 어우러졌다. 또한, 농장주가 속한 강소농 자율모임체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소개하고, 체리를 이용한 다양한 디저트를 만들어 보면서 홍보 효과를 더했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팜파티의 핵심은 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해 다양한 먹거리, 체험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고객과의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어지는 교육과 컨설팅으로, 팜파티에 소비자와 도시민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앞으로 보성군 강소농 팜파티는 7월 23일, 30일 2회에 걸쳐 강소농가 농장의 특성에 맞는 주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출처 : 보성군



보성군, 보성 딸기가 세계 최고입니다!

- 보성생명농업대학 현장교육 호평 -

- 보성군(농업기술센터)은 지난 5일 보성생명농업대학 딸기전문반 교육생 33명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및 농가 육묘농장에서 딸기 육묘관리 이론과 현장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 이번 교육은 20회차 교육 중 9회차 교육으로 교육생 농가 육묘농장을 찾아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수강중인 학생들에게 딸기 육묘기 재배관리기술을 비롯한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실시했다.
- 교육생 전OO씨는“딸기 재배 적기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덕분에 관리 기술을 현장에서 배울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라며 “앞으로 남은 교육도 큰 기대가 된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농업대학 현장교육은 실용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며 “살아있는 현장 교육을 통해 앞서 배운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보성생명농업대학은 지역농업의 특화 발전에 필요한 장기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농장경영 및 과학영농 실천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해 개설하였다. 4월 2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주 1회, 20회차 102시간의 과정으로 전문 강사 및 전문지도사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하고 이를 현장에 접목할 수 있도록 현장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진행 할 예정이다.

*출처 : 보성군



화순군 청년 농업인 4-H회, ‘과제학습포 모내기’

- 도곡면 죽청리 일대 1ha에 모내기 실습 -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13일 도곡면 죽청리에서 청년 농업인 4-H회 활성화를 위한 과제 활동 사업으로 과제학습포에 모내기를 했다.
- 영농4-H 회원 25명이 참여해 GPS 기능이 탑재된 ‘측조 시비 이앙기’를 이용해 1ha에 모내기를 했다.
- 이날 화순군 농업기술센터는 시기별 벼농사 중점 추진 사항과 시비 동시 이앙, 병해충 방제 상자 처리, 소식재배 등 벼농사 생산비 절감 기술과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에 관한 교육도 진행했다.
- 과제학습포 운영은 모내기부터 수확까지 4-H 회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최근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교육 등 영농정보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 한편, 화순군 4-H 연합회에서는 6개회의 회원 145명이 활동하고 있다.
- 영농4-H회는 과제학습포를 운영해 6년 동안 쌀 6540kg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좋은 것을 더욱 좋게 실천으로 배우자’는 4-H의 슬로건을 바탕으로 청년 농업인들이 우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화순군



해남군, 상반기 농민수당 6월 지급

- 신청접수 마무리, 요건 확인 후 25~27일 지급 예정 -

- 해남군은 상반기 농민수당 지급을 앞두고, 신청 접수를 마무리 하는 등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지난 5월 17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무리한 결과 총 1만 3,672명이 농민수당을 신청한 가운데 군은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 해남군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해남군 내 주소를 두고 있고, 2018년 4월 30일 이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군은 실제 거주 및 경작 확인 등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또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인 신청 전년도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비롯해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인한 법적 처분 여부 등을 세무서, 와 관계 부서 협조를 받아 검증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 특히, 복지급여(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 중 농민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 시 소득인정액이 반영되면서 수급자격 탈락 및 급여 감액 등이 우려되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고지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본인이 농민수당 지급을 원할 경우에는 지급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지급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 해남군 농민수당은 6월말까지 상반기 해당분 30만 원(연 6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며, 전액 지역상품권인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출처 : 해남군



영암군, 아프리카돼지열병 선제적 대응

- 거점소독시설 12일부터 본격 운영 -

- 영암군은 지난 12일부터 거점소독시설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며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 영암군은 31농가에 7만4천두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으며 차량을 통한 질병 전파를 막기 위해 12일부터 도포면 원산로 404 소재 거점소독시설을 본격 운영한다.
-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16시까지이며 도축장, 종돈장, 사료 운반차량 등 양돈시설 및 농가 출입차량은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하여 차량과 운전자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 영암군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양돈농가 담당관제를 운영하여 매일 농가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잔반 급여 금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외여행 자제 및 축산물 반입 금지 등을 홍보해왔다”며, “야생멧돼지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울타리 시설이 미흡한 10농가에 울타리 설치를 지원하고 양돈농가에 멧돼지 기피제와 생석회를 살포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영암군



영암군, “적극적인 예찰과 방제로 벼 먹노린재 피해 예방해야”

- 지난해 발생필지 중심으로 예찰 강화 -

- 영암군은 친환경 및 조기재배 단지에서 큰 피해를 주는 해충인 먹노린재의 월동 후 생존율이 72% 이상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히며 적극적인 예찰과 초기 방제를 당부했다.
- 먹노린재는 성충으로 낙엽 속이나 잡초 밑에서 겨울을 지내다 모내기가 끝난 6월 상·중순경 논으로 이동하여 벼의 줄기 및 이삭을 흡즙하여 생육억제, 반점미 유발 등 수량감소와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피해를 주고 9월 중·하순경 월동장소로 이동한다.
- 먹노린재 성충은 날개는 있지만 이동성이 크지 않아 기존에 피해가 없던 포장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할 확률은 낮으나 전년도에 발생했던 지역에서는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
- 방제 적기는 월동성충이 이동을 끝내고 산란하기 전인 6월 하순경이며, 논두렁과 가장자리 위주의 정밀방제가 필요하다. 이때 방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충의 밀도가 높아지고, 줄기가 무성해져 이후 방제에서는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
- 농업기술센터 정찬명소장은 “먹노린재는 논두렁과 가장자리를 집중적으로 예찰해야 하며, 전년도에 피해가 발생했던 농가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6월 중·하순 적기방제가 필요하다”며 예찰 및 적기 방제를 당부하였다.

*출처 : 영암군



무안군, 양파 산지폐기 농가 자담 12억 원 전액 지원

- 무안군(군수 김산)은 양파 과잉생산 및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 재배농가들의 산지폐기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가 자담 20%인 12억 원 전액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 금년 양파는 작황이 좋고 수요보다 생산량이 워낙 많아 가격하락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그 폭이 너무 커 군에서도 가격안정 및 소비촉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 조생종 및 중만생종을 포함한 총 5차례에 걸친 양파 294.5ha(18,174톤) 산지폐기로 그 비용만도 60억 원이 넘는다. 이중 농가가 부담하는 자담이 20%인 12억 원이다.
- 이에 가격하락으로 이중고를 겪는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 군에서는 농가 자담 12억 원 전액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 또, 산지폐기 군비 부담금 15억 원과 수출물류비 8억 8천만 원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지원한다.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위해 2012년부터 예치를 시작해 2019년 6월 현재 60억 원을 군비로 예치했다.
- 최근에는 MBC 생방송 ‘오늘 아침’ 프로그램에 김산 무안군수가 직접 나와 양파 홍보를 위한 촬영까지 하는 등 무안양파 소비촉진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출처 : 무안군



영광군, 농촌 일손 돕기 추진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농번기를 맞아 일손 구하기가 어려운 고령농가에 적기 영농 추진에 도움을 주고자 5월 21일 ~ 6월 21일까지 일손 돕기 중점추진기간으로 정하고 농촌 일손 돕기를 추진하고 있다.
- 이번 농촌 일손 돕기는 단기간에 집중적인 노동력 투입을 필요로 하는 양파, 오디, 블루베리 수확 등에 영광군청 500여 공무원이 참여하여 일손을 보태고 농업인의 애로사항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갖고 현장 적극행정을 추진 중이다.
- 일손 돕기 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매년 양파 수확기에 인력을 구하기도 힘들고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 않아 걱정이 많은데 이렇게 공무원들이 일손 걱정을 덜어주어 저 같은 고령·소농들의 농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 군 관계자는 “농촌 일손 돕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적기에 영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영광군



장성군,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에 총력

- 양돈농가 방역교육 및 실태 점검 추진 -

- 장성군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 대응에 총력을 펼친다.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몽골과 베트남 등으로 확산되었으며, 북한 자강도에서도 발생해 국내유입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없으며 급성의 경우 치사율이 100%인 치명적인 질병이기에 예방이 중요하다. 주요 전파 원인으로는 야생 멧돼지, 항공·선박의 이동, 해외 반입 불법축산물 등으로 밝혀져 있다.
- 장성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해 양돈농가 17개소에 유효 소독약품 250kg을 배부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한 농가 교육을 실시해 발생국가의 불법 축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하고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사용하지 않도록 당부했으며,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 올바른 방역수칙을 지도했다.
- 군은 의심농가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개 반 4명으로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주 1회 양돈농가 현장을 방문해 남은 음식물류 사료급여 여부, 축사 내·외부 소독 실시여부 등 차단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 아울러 마을 방송, 이장 회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차단방역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출처 : 장성군

신안군, 벼농사규모화사업 영농작업 대행비 약정식 개최

-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12일 관내 영농조합법인 3개소와 위탁농가대표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벼농사 규모화사업 영농작업 대행비 약정식」을 개최했다.
- 벼농사규모화사업은 민선7기 박우량 신안군수의 공약사업으로 농촌의 고령·여성 농가 등 영농취약계층과 영세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영농조합법인 3개소를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벼육묘부터 건조까지 기계로 가능한 영농작업을 대규모로 위탁받아 대행해주는 사업이다.
- 이번 약정을 통해 신안군은 영농법인 3개소에 농기계, 육묘장, 농기계 보관창고 등을 지원하고 영농법인은 향후 5년간 영농작업 대행비를 20%이상 인하 할 계획이며, 이번 약정을 통해 위탁 농가 평균 연220만원의 생산비 절감효과가 있고 영농취약층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6월 현재 지도읍·비금면·안좌면 3개 읍·면에서 351ha 면적에 168 농가가 참여하여 논 정지작업과 육묘·모내기 작업을 완료했다.
- 박우량 신안군수는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대규모 기계화영농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점차 영농위탁 면적을 늘려갈 것으로 기대되며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하면 소득 증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 신안군



신안군, 마늘 줄기 절단기 시연회 실시

-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13일 자은면 농기계임대센터에서 박우량 신안군수와 마늘 농가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력 절감을 위한 「마늘 줄기 절단기 시연회」를 실시했다.
- 이번 시연회는 마늘·양파 전작업 기계화를 목표로 신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밭작물 기계화사업의 일환으로 마늘줄기절단기를 이용함으로써 농촌의 일손부족 해소와 농업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적기에 인력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농가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시연회는 실사용자인 농민들이 직접 체험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여성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 신안군은 마늘생산에 필요한 다양한 기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며, 우선 올해는 마늘 파종기, 수확기, 마늘쪽분리기, 쪽마늘 선별기 등을 구입하여 읍·면 농기계임대센터에 비치하였고, 앞으로도 지역특성을 고려한 기계 개발과 보급에 앞장 설 계획이다.
- 박우량 신안군수는 “마늘은 인력이 많이 드는 작물인 만큼 기계화가 꼭 필요하며 밭농사기계화는 농민들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도 직결되므로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신안군



진도군, “멋과 맛이 공존하는 팜파티” 개최

- 진도에 황금봉이 열려요! -

- 진도군은 지난 15일 지산면 삼당리 황금봉 농장일원에서 정보화농업인연합회 주최, 진도군농업기술센터의 후원으로 진도의 농산물을 꾸준히 이용하는 전국의 진성 고객 40여명을 초대하여 팜파티 행사를 개최하였다.
- 진도아리랑 황금봉영농조합법인에서는 진도군에서 재배되고 있는 부지화인 ‘황금봉’을 적극 홍보하고 고객들이 직접 농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번 팜파티를 준비했다. 또 전국 각지에서 온 도시민 고객들이 농장을 벗어나 진도의 멋과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1박 2일간 일정으로 이루어졌고 40여명이 머물 수 있는 숙소도 제공하였다.
- 그 외 진도 문화를 알리는 음악회, 농산물 판매 및 농장 체험, 도자기 제작 체험, 고객과 화합 한마당, 진도 문화 탐방(운림삼방, 세방낙조)등 다양한 내용의 행사가 진행되었다.
- 한편 이날 팜파티 행사에 진도군 이동진 군수가 참석하여 진도의 농산물을 꾸준히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직접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 진도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도농간 교류가 촉진되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가 증진되어 생산자와 구매자간 직거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며 “팜파티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된 교육과 지원에 더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출처 : 진도군(농업기술센터)



2019년 러시아 식품 트렌드 6선

- 2019년 러시아 외식 전문가들이 선별한 식품 트렌드 6가지를 소개한다.
- 식물성 단백질 식품
 - 채식 메뉴가 모든 필수 영양소에 있어 균형 잡혀있다는 것은 오래 전에 입증됐다. 이에 따라 식물성 단백질을 사용한 식품은 2019년 식품산업의 주요한 트렌드 중 하나이다. 식물성 단백질에는 대두 및 견과류, 순수 종자나 가공된 종자가 포함되어 있다. 채식 버거, 치즈와 우유도 식물성 단백질 등에 기반한 것이다.
- 콩으로 만든 파스타
 - 콩류는 순수한 형태의 식물성 단백질의 훌륭한 원천일 뿐 아니라, 콩류로 파스타를 만들 수 있다. 전문가들은 2019년 병아리콩과 붉은색 렌틸콩으로 만든 면이 인기일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이러한 품목들이 이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심지어 전통적인 파스타 면을 생산하는 회사도 이러한 경향에 동참했다. 파스타 애호가들은 맛있고, 건강하고, 체형관리에 해롭지 않은 식품들을 환영할 것이다.

- 프로바이오틱스 식품

- 소화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와 살아있는 미생물들은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사용되는 식품들은 이제 요구르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019년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유된 탄산수, 비 유제품성 음료, 심지어 오트밀까지 인기를 끌 것이다.

- 저포드맵(FODMAP)식품

- 인간의 건강은 얼마나 잘 먹는지, 소화 시스템이 건강한지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그래서 단쇄 탄수화물과 당 알코올 소화에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저포드맵 식단은 구원과도 같다. 용어 FODMAP은 발효의(Fermentable) 올리고당(Oligo-), 이당류(Di-), 단당류(Mono-), 폴리올(Polyol)의 약자에서 유래됐다. 이러한 식이요법은 불쾌한 증상을 완화하고, 배의 부기와 통증을 없애준다. 이러한 식품들이 의학적으로 필수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들은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광고하고 유통채널에 내놓는다.

- 우유가 아닌 대체 유제품

- 두유는 놀랄 일이 아니다. 제조자들은 더 멀리 나아갔다: 오트밀, 참깨, 피칸, 캐슈너트 우유가 등장했다. 이 식품들은 유당불내증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훌륭한 대체 우유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체 유제품에는 두 가지 단점이 존재한다.
- 이러한 음료는 충분한 수준의 단백질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우유의 완전한 대체재가 되지는 못한다.

- 이러한 음료는 견과류로 만들어지며,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숙지해야 한다.
-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우유 대체 음료들은 2019년 중요한 식품 트렌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 고온 연소 기름

- 현대에는 요리에 사용할 수 있는 많은 기름이 존재한다. 소비자 대부분은 해바라기유, 올리브유, 겨자유, 아마유를 소비한다. 그러나 모든 기름이 고온 조리를 위해 고안된 것은 아니다. 이 중 일부는 매우 낮은 연소 온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름으로 조리한 음식에서는 불쾌한 탄내가 난다. 이것들이 과열되면 자유라디컬과 발암성 물질이 방출된다.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요리할 계획이라면 높은 연소 온도의 기름을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해조류 기름은 400도의 온도에서 연소하기 시작한다.

● 시사점

- 러시아에서는 과거 식품은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식품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소비자들은 더욱더 건강한 먹거리를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을 따라, 한국 식품의 영양학적 효능을 강조해 러시아 시장에 수출한다면, 러시아 시장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06. 17. 시카고 선물거래소)

- 옥수수 선물가격, 농작물에 대한 우려와 확고한 현금 시장에서 5년 만에 최고치 기록 -

- 밀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0.6% 상승했다. 밀 선물가격은 옥수수의 강세와 가축사료로 사용되는 미국산 밀의 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금요일 더 높은 수준으로 마감되었다. 기상청은 남부 우크라이나 전역의 폭염이 곡식의 조기 수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봄 밀, 봄 보리, 귀리가 위험하다.
-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2.5% 상승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다음 주 동쪽에 위치한 중서부지역에 소나기가 더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생산 전망을 어둡게 만들면서 확고한 현금시장과 기술매수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 대두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1.0% 상승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미국 중서부에 내린 비로 인해 파종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더 상승했다. 일기예보에서는 향후 15일간 미주리, 일리노이, 인디애나, 오하이오 주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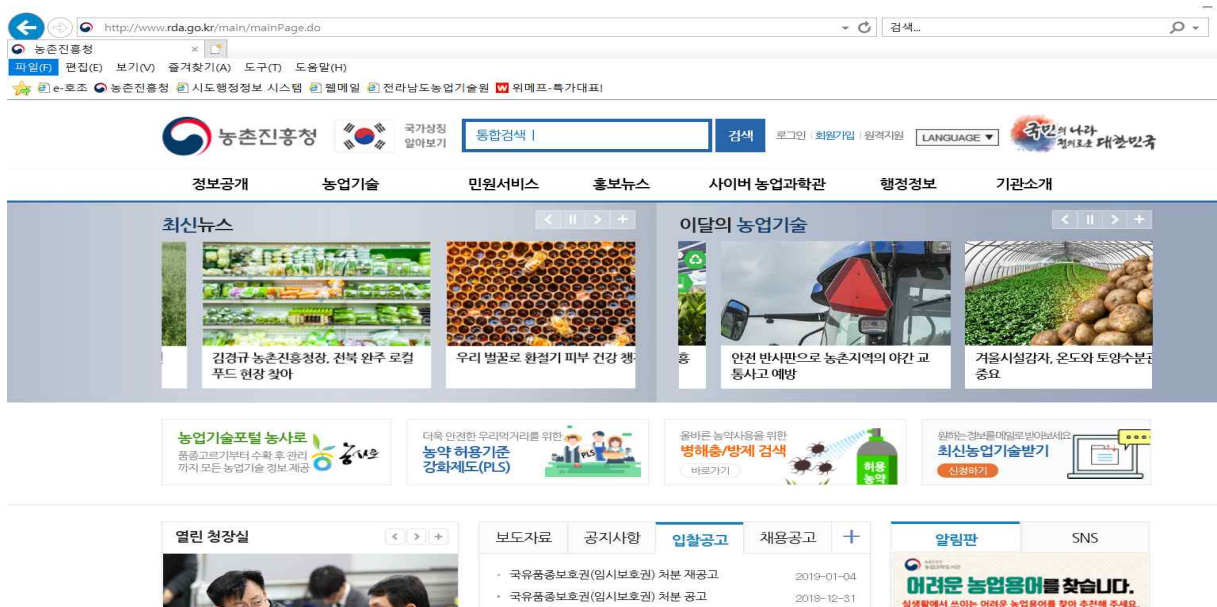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농촌진흥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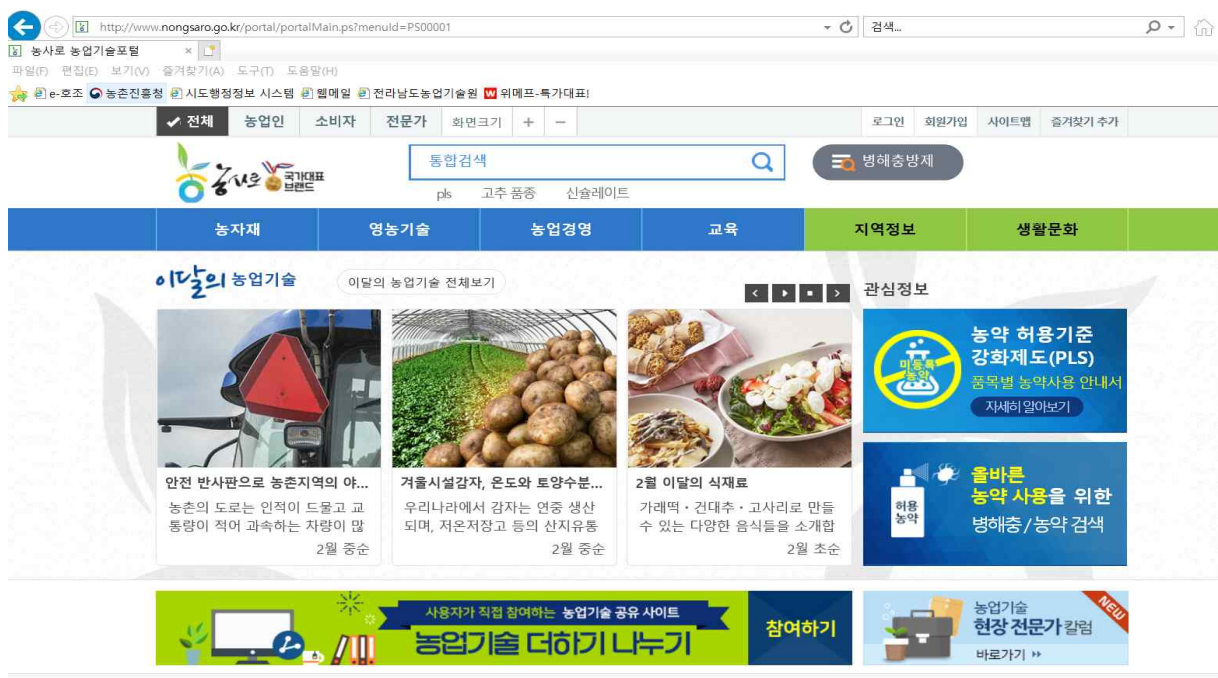
- 농사에 필요한 재배기술은 농촌진흥청(www.rda.go.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정보공개, 농업기술, 민원서비스, 홍보뉴스, 사이버농업과학관, 행정정보, 기관소개로 분류되어 있으며,
- 홍보뉴스의 새소식에서는 공지사항, 보도자료, 설명/해명, 주요행사계획, 인물/동정, 농촌지방소식을 확인할 수 있다.
- 홍보뉴스의 사이버 구독에서는 간행물 e-book(그린매거진, 월간농업기술), 뉴스레터(RDA뉴스레터)를 확인할 수 있다.
- 그린매거진과 월간농업기술은 월별로 발간되며, RDA뉴스레터는 매주 전파되어 확인할 수 있다.





농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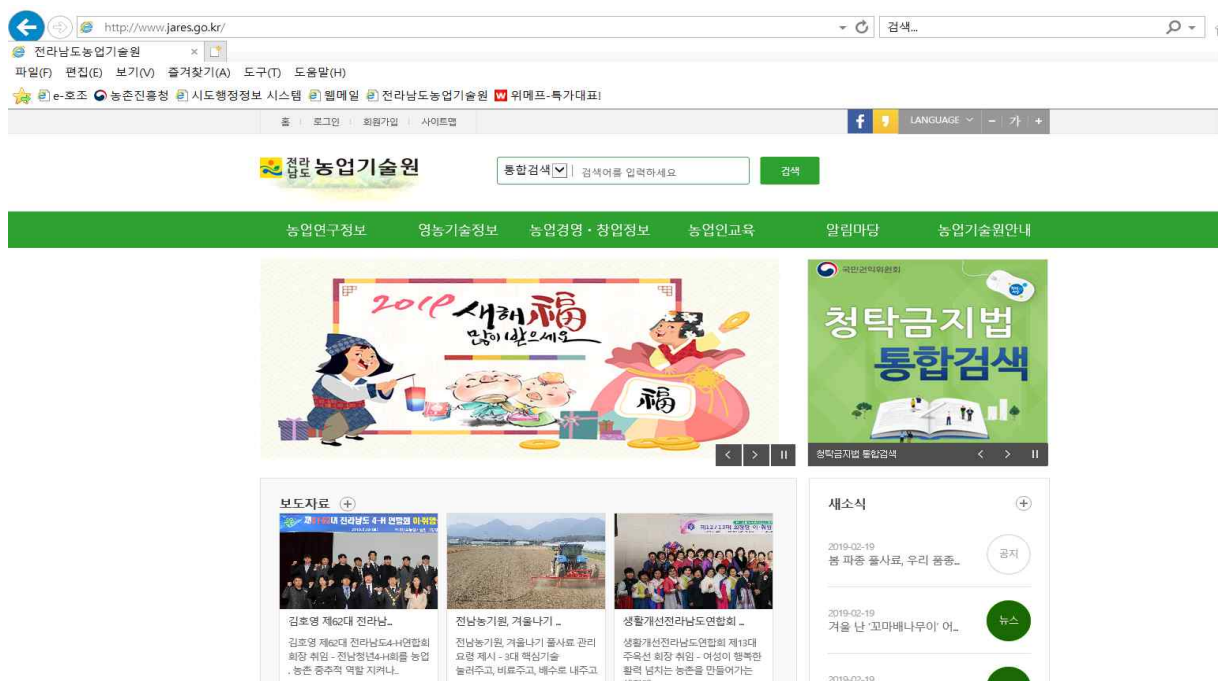
- 농사에 필요한 재배기술은 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농사로에서는 농자재, 영농기술, 농업경영, 교육, 지역정보, 생활문화로 분류되어 있으며,
- 농자재에서는 품종, 농약, 비료 농기계, 한국표준사료성분표, 농자재관련 법령을 확인할 수 있다.
- 영농기술에서는 농업기술, 영농활용정보, 친환경유기농업, 연구성과정보, 농업도서정보, 해외농업, 수출농업, 농업환경, 축산분뇨, 곤충표본관, 빅데이터활용기술지원을 확인할 수 있다.
- 농업경영에서는 농산물소득정보, 우수사례, 경영기술, 농식품소비트렌드, 농축산물가격, 경제성분석기준자료, 농가경영관리프로그램, 농식품산업동향, 관측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

- 농사에 필요한 재배기술은 전라남도농업기술원(www.jares.go.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연구정보, 영농기술정보, 농업경영·창업정보, 농업인교육, 알림마당, 농업기술원안내로 분류되어 있으며,
- 영농기술정보에서는 주간농사정보, 작목별기술정보, 병해충발생정보, 친환경농업정보, 기술보급동향, 병해충사진검색, 품종정보, 농업기술동영상, 품목관리메뉴얼, 유통/가공 가격동향, 생산비절감 경영메뉴얼을 확인할 수 있다.
- 농업인교육에서는 월별교육일정, 농업인전문기술교육, 농업인교육, 농기계교육, 경영·정보화 교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알림마당에서는 보도자료, 농업기술뉴스, 전남농업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청렴한세상 - 쇠고기 이력을 거짓으로 표시해서 납품

쇠고기 이력을 거짓으로 표시해서
납품한 행위는 공익침해 행위일까요?



by 강대영





부탁 · 공익침해 신고
1398

-쇠고기 유통 및 판매업체에서 쇠고기 어력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학교급식업체에 납품한 행위는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됩니다 -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주간 전남농업

VOL. 238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58213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Tel. 061)330-2592 Fax. 061)335-4199

